

LÉVY GORVY

레비고비, 유타 쾨터(Jutta Koether)와 첫 개인전 개최

유타 쾨터: 4 the Team
Jutta Koether: 4 the Team

2020년 2월 27일 - 4월 18일

레비고비
909 매디슨 애비뉴
뉴욕

오프닝 리셉션: 2월 26일 수요일, 6-8PM



<앙코르 Encore> (2019). 캔버스에 유채, 210 x 340 cm. © 유타 쾨터

뉴욕—레비고비는 유타 쾨터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매디슨가의 랜드마크인 레비고비 갤러리의 3개 층을 모두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신작과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에 걸친 주요작을 함께 소개한다. 회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와 오늘날 회화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넘어, 쾨터는 매우 유연한 작가적 태도를 견지한다. 1980년대 켈른 미술계의 주요 담론을 형성한 차용의 문제부터 1991년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 경험한 여러 미술사적 흐름을 작가는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며 초기 모더니즘 회화부터, 상징주의, 후기 인상주의,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적 계보를 구축한다. 또한 그는 픽셀화된 격자 패턴, 강렬한 붉은색이나 풀어진 리본 등의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

같은 작업에 여러 층위를 더한다. 각 모티브의 의미는 완강하면서도 규정하기 불가능하며, 역사적 깊이를 지닌 동시에 캔버스를 마주하는 관객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회화 매체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사유하며 궤터는 주관적 감성과 비동시성(synchrony), 부조화(dissonance)를 앞세워 지극히 동시대적이며 새로운 회화의 장을 개척한다.

갤러리의 1층 전시공간에는 3점의 대규모 회화 신작이 관객을 맞이한다. 다채롭고 복합적인 구성의 작품들은 각자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동시에 이 같은 의미의 불확실성은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한다. <앙코르 Encore> (2019)에 등장하는 여성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무대의 파노라마를 장악한다. 붓을 손에 쥔 그는 허공에 역동적으로 펼쳐진 리본을 잡고 있고 이는 그의 몸과 극장의 화려한 내부를 연결한다. 점묘 화법과 추상적 붓질로 표현된 관객의 모습과 마주하며 여성은 관대한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린 채 자신의 공연을 펼친다. 음악을 회화의 알레고리로서 표현하며 <앙코르>는 언어를 초월하는 의미 함축과 감정 표현의 힘을 지닌 음악과 회화 예술을 기념한다.

<앙코르>와 동일한 사이즈의 세로 형태로 제작된 <신(新) 여성 Neue Frau>와 <신(新) 남성 Neuer Mann>(2019)은 제목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아방가르드 작가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탐구해 온 ‘신 여성’과 ‘신 남성’의 초상을 궤터만의 비전으로 구현하며 이를 통해 삶과 예술을 통일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자 했던 작가들의 노력을 이어간다. 맨하탄의 로우어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를 배경으로 삼은 <신(新) 여성 Neue Frau>은 선구적인 신예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의 벽화 위로 소용돌이치는 리본 형태를 표현한다. 이를 동반하는 <신(新) 남성 Neuer Mann>은 두 남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중 한 명은 흘러내리는 리본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다른 한 명은 왼손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며 서 있는 자세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남성의 기묘한 손짓은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회화에 등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는 작가가 작품에 몰입하면서 그의 정신과 신체, 이미지가 하나로 통합되며, 이로써 회화는 곧 손으로 사유하는 행위라고 믿었던 다빈치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화경과 같이 다채로운 색을 배경으로 서있는 남성은 야자수를 품에 안고 있다. 야자수는 예수를 암시함과 동시에 부활의 상징으로, <신(新) 여성 Neue Frau>에서 오카시오-코르테즈의 모습 뒤 콘크리트 위로 피어오르는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새싹의 모습과 조화를 이룬다.



<신 여성 Neue Frau>(2019). 캔버스에 유채, 340 x 210 cm. ©유타 궤터

전시의 2층 공간은 궤터가 쾰른에서 작업한 초기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과 구성을 소개한다. 제단화, 혹은 성물(聖物)과 같은 작은 사이즈로 제작된 이 작품들은 당시 주요 미술 흐름이었던 신표현주의와 더불어 모더니즘 회화 전통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자 했던 작가의 노력을 보여준다. 작가로서 자신만의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궤터는 <에소테릭 시핑 Some Esoteric Sipping>(1986)과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듯이 밀교(密敎)와 비주류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사각형 아래로 수염이나 뿌리와 같은 줄이 매달리며 뻗어나오는 모습의 작품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캔버스를 인체의 영역으로 치환한다. 한편 <이디 Edie>(1983), <무제 Untitled>(1984)와 같은 초기작은 물감의 물질성을 강조하며 두터운 임파스토(impasto)와 피부의 색감, 파편화된 여성의 신체로써 육체를 표현한다. 의도적으로 거칠고 압축된 공간을 그린 작가의 초기작은 이후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보다 밝고 매끄러운 표면으로 진화한다.

강렬한 붉은색의 <100% (로버트 존슨의 초상) 100% (Portrait of Robert Johnson)>(1990)은 도식적으로 표현된 주인공의 초상과 함께 "집착적인(obsessed)", "전율적인(electric)", "정신적인(spiritual)", "우주적인(astral)", "아우라(aura)" 등 일련의 형용사와 명사를 함께 나열한다. 비대칭적이며 동시에 정열적인 이면화(diptych)를 통해 피터는 회화의 종말을 선언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100%" 매체에 몰두하는 그만의 작가정신을 담아낸다.



<에소테릭 시핑 Some Esoteric Sipping>(1986). 캔버스에 유채, 40 x 30 cm. ©유타 피터, Lévy Gorvy, Galerie Buchholz 제공

드러난다.

3층 전시공간에서는 피터만의 독특한 차용 방식이 돋보이는 일련의 회화 신작이 소개된다. 작가가 '정서적 도입 (affective import)'이라고 표현한 그의 접근법은 오브제와 아이디어를 한 맥락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옮기는 도입의 과정과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의미를 드러내는 미묘한 암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회화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레퍼런스가 가지는 심리적 무게를 보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차용 행위를 통해 그 의미가 스스로 재해석, 재탄생할 수 있도록 존중한다. <핑크빛 여인들 2 Pink Ladies 2>와 <핑크빛 여인들 3 Pink Ladies 3>(2019)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원의 형태는 사과 혹은 여성의 가슴을 연상시키며, 1917년 맨스필드가 화가인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작품에서 사과를 그릴 때면 당신의 가슴과 무릎도 사과가 되는 느낌이 드나요?"라고 했던 질문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정물화와 누드화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작품 <장막 Vorhang> (1988-89)에서는 <앙코르> 속 주인공의 머리와 망토, 그리고 <홀딩 Holding>(2019) 연작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곡선과 균열 사이로 드러나는 붉은 커튼의 모티브가 등장한다. 특히 '움켜쥌다'라는 의미를 가진 연작의 제목인 <홀딩>은 완전한 몰입의 태도를 뜻하는 독일어 'Haltung'과 언캐니한 연관성을 지닌다. 작품에서 피터가 표현하는 커튼은 피부나 세포의 막과 같은 존재로서 작가와 그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예술적 영향이 작가에게 전이되며 그 자취를 남기게 된다. 이 같은 전이와 몰입의 개념은 영국 문학가 캐서린 맨스필드(Catherine Mansfield)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를 중심으로 한 런던의 모더니스트 작가 중 한 명이였다. 화가 폴 세잔(Paul Cézanne)의 사과 정물화와 인상주의 회화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는 물론, 일상의 경험을 생동감 넘치는 색감, 형태, 감각으로 표현했던 맨스필드의 글은 피터의 작품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붉은 색감과 유기적인 원의 형태로



<크루아세 Croisset>(1985). 캔버스에 유채, 35.5 x 35.5 cm. ©유타 피터, Lévy Gorvy, Galerie Buchholz 제공

같은 유기적 형태는 예술과 인체를 결합하며 포스트 미니멀리즘 이후 이를 끊임없이 탐색해 온 생태적 추상(biomorphic abstraction)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번 전시에서 쿠퍼는 숫자 4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3점의 회화를 새롭게 선보이며, 이 작품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장 자코포 다 폰토르모(Jacopo da Pontormo)의 명화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Visitation>(1528-29)부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아비뇰의 여인들 Les Femmes d'Alger (O. J.)>(1911),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춤 Dance>(1910)에 이르는 알레고리 회화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삼는다. <레스뤼그 리 (4 루시안) Lespugued Leigh (4 Lucian)>(2019)는 행위예술가 리 바워리(Leigh Bowery)의 모습을 강렬한 화법으로 포착한 화가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의 <벌거벗은 남자, 뒷모습 Naked Man, Back View>(1991)과 <레스뤼그의 비너스 Venus of Lespugue>(c. 26,000 BCE)로 알려진 구석기시대 여신상의 풍만한 실루엣을 레이어링 하여 부조화 속에 숨겨진 쾌락을 탐색한다. 한편 <뒤러 (4 여인들) Dürer (4 Women)>(2019)는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의 판화 <네 명의 나부들 Four Naked Women> (1497)을 참조한 작품으로, 뒤러의 원작은 오늘날까지도 작품의 의미와 해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수많은 학자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뒤러의 원작을 재구성한 이 작품에서 쿠퍼는 서로 상반되는 여인들의 기운에 집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요 모티브인 모호한 사과 혹은 가슴 형상과 그가 '악마의 옵션(demonic options)'라고 묘사한 이모티콘 같은 형태들을 삽입해 원작에서 등장하는 악마의 모습을 대체한다. 익살스러우면서도 기이한 이 얼굴들은 원작의 무게를 탈피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디테일을 드러낸다.

전시의 제목을 부제로 삼은 작품 <쿠퍼 (4 더 팀) Koethered (4 the Team)>(2019)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가 1986년 연설 중 "열린 사회의 횃불은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발언과 포뮬러 원(Formula One) 우승을 자축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광고에서 작가가 차용한 "4(four) 더 팀 (the team)" 슬로건을 병치한다. 물결치는 곡선과 낙서 위로 새겨진 두 텍스트는 사회적 매체로서 회화를 바라보는 쿠퍼의 예술관을 대변한다. 쿠퍼의 작품세계에서 회화는 곧 불가사의하면서도 지극히 일상적인, 집단적 의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쿠퍼 (4 더 팀) Koethered (4 the Team)>은 예술 행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며 이는 연속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인해 계승될 수 있는 생존능력을 기반으로 정의된다.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레비고비는 작가와 유명 미술자문가 알렌 슈와츠만(Allan Schwartzman)의 글이 수록된 아티스트 북을 한정판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옥션 카달로그 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출판물은 뉴욕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 소장된 작가의 아상블라주 회화 작품 <악마의 옵션 (대형 #1) Demonic Options (large format #1)> (2010)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작품을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시각적 은유와 개념적 전략을 소개한다. 그의 회화 작업에 있어 핵심을 이루는 이 두 측면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이번 아티스트 북은 쾰른에서 뉴욕까지, 1980년대부터 현재를 넘어 앞으로 펼쳐질 쿠퍼의 예술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작가 소개

1958년 독일 쾰른 출생으로 현재 베를린과 뉴욕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이다. Whitney Biennial(2012)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전시에서 작품과 퍼포먼스를 소개한 바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 뮌헨 Museum Brandhorst 의 <Tour De Madame>展 (2018, 이후 2019년 Mudam Luxembourg 로 순회); 뮌헨글라트바흐 Museum Abteiberg 의 <Libertine>展 (2019-20); 베를린 PRAXE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의 <Cycle 1: Viktoria, Luise, and Isabelle>展 (2013-14); 스톡홀름 Moderna

Museet 의 <The Thirst>展 (2011); 에인트호번 Van Abbemuseum 개인전, 베르겐 Bergen Kunsthalle 의 <LEIBHAFTIGE, MALEREI, JXXXA>展 (2008); 베른 Kunsthalle Bern <Änderungen aller Art>展 (2007); 비엔나 Academy of Fine Arts 의 <Love in a Void>展 (2006), 쾰른 Kölnischer Kunstverein 의 <Fantasia Colonia>展 (2006); 비엔나 Generali Foundation 의 <massen, malerei und versammlung>展 등이 있다.

괴터의 작품은 뉴욕 Museum of Modern Ar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베른 Kunsthalle Bern, 프랑크푸르트암마인 MMK Museum für Moderne Kunst, 파리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뮌헨 Museum Brandhorst, 비엔나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암스테르담 Stedelijk Museum 을 포함한 세계 우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가 설립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 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Andrea Schwan, Andrea Schwan Inc., andrea@andreaschwan.com